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http://www.motie.go.kr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
경제혁신 3개년 계획
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월 11일(수) 7시 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정책과 문동민 과장(044-203-4210), 이주형 사무관(044-203-4215)

산업부,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 개최

◈ **산업부(장관 윤상직)는 2.11.(수) '주요기업 투자 간담회'에서 주요 투자프로젝트 애로해소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가속화 노력을 당부했다.**

◈ **제조업 주요 투자프로젝트(기 발굴된 투자 포함) 애로해소현황 점검 결과, 34.4조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(공장 신·증설 등 그린필드 투자)가 올해 착수할 것으로 집계했다.**

① **'14.10월 투자간담회에서 기 발굴된 프로젝트: 22.4조원**
② **산업부 주관 현장대기 프로젝트(투자활성화대책 등 기 발굴): 10.9조원**
③ **올해 1월 조사를 통해 새로 발굴된 프로젝트: 1.1조원**

* 상기프로젝트는 금년내 착수가 확실시되는 공장 신·증설 등 그린필드 투자에 한해 집계가 된 것이며, 연례적 유지·보수, 신모델 개발 등 연구개발(R&D) 투자, 부지매입 등은 제외(**상세 집계기준은 2페이지 참조**)

④ **한편, 업계는 23건, 7.1조 원 이상의 제조업 및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(산은, 15조원 투입)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.**

* 단, 지원여부 및 규모, 착수시기는 산은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

◈ **윤 장관은 "업계가 기업간 인수합병(M&A), 비핵심부문 이전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체질을 개선하는 사업재편 노력을 가속화해 주기"를 요청했다.**

ㅇ **"정부는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에 대해 산은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활용*, (가칭)'사업재편지원특별법' 제정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."라고 말했다.**

* 투자와 연계된 사업재편 우선 지원

간담회 개요

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**2월 11일(수) 플라자호텔에서 주요 기업 투자 간담회를 열었다.**

<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 개요 >
◈ 일시: 2. 11. (수) 07:30～09:00
◈ 장소: 서울 플라자 호텔 22F 다이아몬드홀
◈ 참석: 산업부장관(주재), 기재부 1차관, 삼성전자·현대차 등 기업 CEO, 산은 부행장, 전경련/대한상의/중견련 부회장,

□ 이번 간담회는 **올해 투자동향을 논의**하는 한편, 제조업 주요 투자 프로젝트(기 발표 프로젝트 포함)의 **애로해소를 위한 민관의 추진현황을 점검**하기 위하여 마련했다.

산업부 장관 발언 요지

□ 윤상직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**"올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'경제혁신 3개년 계획'을 착실히 이행하겠다."** 라고 강조하고, **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을 말했다.**

① **(자유무역협정(FTA)플랫폼 적극 활용)** '한·중 자유무역협정(FTA) 타결'로 '자유무역협정(FTA) 플랫폼'이 구축된 만큼, 이를 활용한 **해외시장 진출 노력을 가속화**해 주시기 바람.

② **(기업투자 지원)** 올해 착수되는 **34.4조원 규모의 공장 신증설 등 그린필드 투자**가 **'차질없이 실행'될 수 있도록 뒷받침.**

- **어떠한 투자 어려움이라도 전달**해주시면, **산업부 장관이 앞장서서 투자애로 해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처리**해 나갈 것임.

③ **(사업재편 노력 가속화)** 최근 **일부기업들이 인수·합병을 통해 핵심**

역량에 집중, 대형화·전문화·신산업진출 등 **사업재편 노력 추진** 중

- **우리 기업들의 사업재편 노력을 높이 평가**하며, **'(가칭)사업재편 지원특별법 제정', '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(산은)*'** 등 **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지원**할 것임.

* 투자와 연계된 사업재편 우선 지원

※ **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**을 위한 **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**할 수 있는 특별법(가칭 "사업재편지원특별법") 제정을 위해 **상반기 중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**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 마련('15년 경제정책방향)

'15년 착수 예정 제조업 주요 투자프로젝트

□ 산업부가 업계의 협조를 받아 집계한 결과 제조업 분야 **'15년중 기공식 등 본격적인 투자 착수 주요프로젝트는 34.4조원** 규모였다.

◆ **(투자규모 집계 기준)** 제조업 기업들이 제시한 주요 투자프로젝트 중에서
① '15년 이전에 착수하여 올해도 투자가 계속되는 프로젝트 제외
② 연례적인 유지·보수 및 신모델 개발 등 R&D 투자, 부지매입 등 제외
③ 투자 확정을 위해 기업 내부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투자 제외
④ '15년 중 기공식 등 **본격적인 착수가 확실시되는 공장 신·증설 등 그린필드 투자**만 집계

① **'14.10월 투자간담회 발굴 프로젝트**(13건, 28.4조원) **중 22.4조원 규모의 투자가 올해 착수할** 예정.

* 기 배포 보도자료('14.10.6, '16개 주요기업, 14.下부터 28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') 참조
* '14.10월 투자간담회에서 발굴된 총투자규모(28.4조원)와 '15년 착수 예정 주요 프로젝트(22.4조원)와 차이(6.0조원)는 ①'14년 하반기 旣투자착수, ②유지보수 투자로 전환, ③지자체 협의 진행중 등으로 조사됨

- 정부는 그간 **전력인프라 조기구축, R&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, 용수 사용료 부담완화, 간선도로 조기완공** 등을 통해 투자 걸림돌 해소.

<정부의 투자애로 해소 노력 사례>

기업	투자 프로젝트	투자 애로 해소 내용	비고
삼성전자	▪ 평택 반도체 신규라인 건설(15.6조원, '15.上 착공)	▪ **전력인프라 조기 구축**('18.6월 → '16년말)으로 1년 이상 공사 착수시기를 앞당김	
A社	▪ OLED 라인 증설 (규모 비공개, '15년중 착공)	▪ **R&D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** (조특법 시행령 개정, 11.4일 시행)	
B社	▪ 산단내 OLED 라인 증설 (4조원, '15년 착공)	▪ **용수 사용료 부담완화**('15.12월) - 정수장 운영·관리를 입주기업체 협의회 위탁토록 조례 개정 ▪ **간선도로 조기 완공 추진**('15.12월) - LH 공사비 납부시기를 앞당겨 동서축 간선도로 완공	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해소

※ 개별 프로젝트의 내용은 기업들의 동의가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공개함

② 투자활성화 대책 중 **산업부 주관 현장대기 프로젝트에서 10.9조원 규모 투자** 착수할 예정.

<정부의 투자애로 해소 노력 사례>

기업	프로젝트 내용	투자 애로 해소 내용	비고
S-OIL	▪ 울산 공장 신증설 (총 8조원, '15년초 본격착수)	▪ 산단내 **석유공사 저장탱크 지하화**로 온산산단내 부지부족 해소	
GS칼텍스 등	▪ 여수산단 녹지해제 통한 공장증설(2.7조원, '15년中 착공)	▪ **개발이익부담금 이중부담** 해소 ▪ **산단외 대체녹지 조성**	
포스코 등	▪ 광양-여수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(0.2조원, '15.上착공)	▪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으로 **운송비 등 생산원가 절감**	

※ 개별 프로젝트의 내용은 기업들의 동의가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공개함

* 산업부 주관 현장대기프로젝트는 총 16조원 규모, 이중 4.1조원 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며, 1조원 규모의 투자는 업황 등을 감안하여 착수시기 결정 예정

③ 올해 1월 조사를 통해 새로 발굴된 **'15년 착수 예정인 주요 프로젝트는 1.1조원** 규모 예상.

* 포스코 광양 아연도금강판 공장 신축, 현대모비스 충주 친환경 공장 증축, 현대차 엔진공장 라인 증설 등

산업은행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설명 및 협의

□ 산업은행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**'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'을 기업들에게 설명했다.**

◆ 산은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

- **(운용규모)** 총 30조원(산은 15조원 + 민간 15조원)
- **(지원분야)** 신성장산업, 전통 주력산업, SOC·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되 그 밖의 분야도 지원 가능
- **(자금용도)** 시설투자(시설 가동 소요자금 포함), R&D자금,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M&A·분사시 소요자금(설비·R&D투자 연계사업 우선) 등
- **(지원방식)** 주식 및 주식관련채 위주이나, 투·융자 복합금융 등도 가능

□ 산업부 집계 결과 업계는 **제조업 및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23건*(총 7.1조원 이상)**에 대해 **산업은행의 투·융자 등을 요청**했다.

* LNG운반선 시운전용 벙커링 셔틀 도입 투자, Eco-ship 파이낸싱 펀드, 산단 환경개선 펀드 등을 검토 요청

○ 산업은행은 **사업성 검토를 통해 실제 투·융자 여부 및 규모를 결정**할 계획이다.

투자 애로와 건의사항 및 향후 일정

□ 간담회에서는 **주요기업의 투자 관련 애로·건의사항도 청취**하였으며,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**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**할 계획이다.

* **간담회 주요 발언 내용은 행사 이후에 서면 자료로 배포할 예정**

※ 한편, **전경련**은 주요기업 투자간담회에 참석하여 **"경제계는 당초 계획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**할 것"이라고 밝히며, **사업재편촉진 특별법 제정,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** 등을 건의
(구체적인 내용은 전경련 별도 보도자료 참고)

□ 윤장관은 이날 개최된 제조업 주요기업 간담회에 이어 **외투기업 간담회를 2월중 개최**(2.23 예정)하여 **투자 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**하기로 했다.

○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**제시된 애로가 '일대일 전담체계'를 통해 조속히 해소**되어 **투자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**하기로 했다. 끝.